



트리플 카메라
시대의 리드 오프
Galaxy A7
SM-A750F
SAMSUNG

세계연합신문



제 162 호 (2019년 10월 15일 창간)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www.wunionnews.com

대표전화 : 1899-2026

與 “재난지원금으로 총선 패배 분풀이”…통합당 맹폭

통합당 제동에 “매우 어이없는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
자발적 기부 실효성 논란에 “고소득자 최소 10~20% 참여”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가정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 요구로 제동을 건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해 오라는 통합당 요구대로 합의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말바꾸기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총선 기간 황교안과 김재원이 긴급 재정명령까지 요구한 걸 기억하고 있다. 총선 끝나기 무섭게 말 바꾸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는 건 매우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다. 원내대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 일정 합의가 느린다”며 “(20대 국회) 임기 안에 추경 처리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보인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게 통합당의 본심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 예산심사 자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통합당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예산심사 방해를 멈추기 바란다. 예결위와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정상적 추경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갑자기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국민 50만원 지급’이라는 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총선 이후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막상 당정 합의안이 나오니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한다. 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세계 각국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 증대에 기여한 효과를 언급하면서 “통합당은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는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라”며 “그것이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교훈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국민들께 뭐라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통합당의 요구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

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제안돼 있는 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다시 또 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참 힘들다”며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국회 협상)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이달 중에 발표해 5월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구상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방어 논리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수령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지급과 비교해) 실제 재정적인 캡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산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자발적 기부 방식은 우리가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시절 자발적 기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빅 소사이어티 전략’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국란을 맞고 있는 시기에 국가 운운에 아주 유효한 어젠다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중대본, 자가격리 위반자

4월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원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달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해외 입국단계에서 휴대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GIMPO

김포도시철도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코로나19 극복 제도개선 건의

현행 제도·절차·코로나19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 감사 등 개선 요청

건설, 경제, 예산 집행, R&D, 투자 분야 등 총 9개 부처소관, 21건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소관 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과제수도 총 21개 과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

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각종 별명·제도와 절차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건설 분야를 예로 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 원→200억 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의 특성상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의 해소와 적극적인 재해·재난 복구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하고, 적

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1,000억 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500억 원) 및 투자심사 제외 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 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

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주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

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3년 이내) △구미 국가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6.30일 까지→21.6.30일 까지)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밖에 현재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 “이철우 도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시민 대상 협치 정책·의제 공모에 41건 접수

사회적경제·청소년 공간 조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제안 나와

경기 용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실시한 협치 정책·의제 공모에 총 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련 정책 공모를 했다.

이번 공모에는 환경, 마을돌봄,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소년 공간, 생활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제안이 접수됐다.

시민 하선씨 등 3명은 청소년 공간·문화공간 조성을, 홍래경씨는 용인형 아이돌봄 서비스 어플리케

이션 개발을 제안했다.

이종환씨는 마을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을관리기업 설립을, 연인선씨는 어린이 놀이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시는 접수된 시민 제안을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하반기 시민 공론장을 열어 속의 과정을 거친 후 협치 의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된 정책이나 의제는 관련 부서가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평생학습 메카 광명시, 전국 첫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장애인·가족 평생학습 권리 보장
21년 만에 차별 없는 도시 구현



경기 광명시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전국 첫 평생학습도시로 자리 잡은 지 21년 만에 이뤄낸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는 명실상부 평생학습 중심 도시 광명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통해 “누구든 차별과 소외 없이 참여하고 학습 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생명도시 광명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7기 핵심 공약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정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에 앞서 2018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 직영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신설했다.

또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민 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6개 영역을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방문조사, 장애인 종사 사업 현황 분석, 멘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등의 위원 15명으

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꾸려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3개월 동안 장애분야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정한 6개 영역 정책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6개 영역을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99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데 이어 21년 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말했다.

또 “평생학습의 놀라운 사실은 개인이 변화하고 배움을 나누면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경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 생명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광명시는 4월 새로 이전한 철망산

평생학습원 4층(132㎡)과 5층(85㎡) 2개실에 ‘장애인평생학습실’을 마련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학습할 수 있게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99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데 이어 21년 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말했다.

또 “평생학습의 놀라운 사실은 개인이 변화하고 배움을 나누면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경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 생명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광명시는 4월 새로 이전한 철망산

광명/김해숙 기자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운영

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이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위기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저소득가구의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은 1억6천만 원, 금융재산은 974만 원(4인가구)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이천시는 긴급복지 예산을 현재 예산 7억 원 대비 9억여 원이 들어난 총 16억 원을 확보하였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중위소득 90%이하)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유기영 기자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20일부터 45억 전액 지급

1인당 60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기간 농진 농업인 추가 신청 가능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45억 원을 이달 안에 전액 지급한다.

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월 중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이 조기에 지급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 활동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이달 20일부터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지급된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4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농업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경주시, 코로나19 조기극복과 파급 최소화 위해

추경예산안 1,765억 원’ 의회 제출
지역경제 활력 부여 중점 둔 예산 편성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긴급 선택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4,150억 원보다 1,765억 원(12.5%)이 증가한 총 예산은 1조 5,915억 원으로, 회계별 규모는

200억 원(12.4%↑) 증가하여 1,460억 원이다.

추경편성을 위해 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870억 원과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5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또한 교부세 등 사용 가능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방역, 재난긴급 생활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 1,550억 원 중 758억 원(48.9%)을 차지하는 선택적 추경’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생활비 22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32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56억 원 △정부 추경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68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주/한반식 기자

성남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신청 줄이어

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온라인·현장 접수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43%의 신청률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비는 온라인 1만 5279건, 현장 접수 9411건 등 모두 2만4690건이 접수돼 대상자의 53%가 신청했다.

온수미 성남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금이 지급되어 인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복지안전망 외의 사각지대까지 밝길 및 지원해 시민 전체와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성남/김난희 기자

국회 재난지원금 '안갯속'…야당 기류 변화에 겹쳐

민주 "야, 공약 뒤집으면 응분의 책임"…5월초 지급 목표

갑론을박, 재난지원금 논의 못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마무리 지은 여야가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이 달길 2차 코로나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국회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 위원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예상밖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내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되며 여야간 의견이 벌어지는 조짐이 있어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주경이 통과돼 5월 중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야만 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에 대한 야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며 "야당이 이것을 또 정쟁거리로 만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의견과 관련해 "(당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 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조화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 설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여당은 전 국민 100만원 지급안을 고수, 5월 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안인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안보다 규모가 작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케하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이라고 제안했다.

변수는 문제는 통합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다.

통합당에선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 지급 여당안과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가 흔진 직후까지는 강했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이에 반대



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여당의 100% 지급안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합당이 내세운 '재정건전성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반대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고용유지나 경제활력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소득 상위 30%에 100만원을 준다고 소비가 더 나아지겠느냐. (소득 상위 30%는) 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반대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과 조기 전대론을 놓고 의원들 간 갑론을박

이 종일 되풀이되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는데 집중해야 돼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다고 (회신이 왔다)"며 "(구체적 회동 시기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나. 액수와 방식이 문제가 된다. 국채를 동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도 여전해 이 또한 변수로 지목된다. 다만 이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제시하면 이견을 좁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현재로썬 지배적이다.

/추동명 기자

안내견은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

보행 중 만지면 안 돼

시각장애인 허락 있으면 가능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39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4세·수컷)가 연일 화제다.

현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가 '출입은 당연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여론 또한 찬성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는 방증이다.

여기에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내견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안내견에 대한 '오해'는 곳곳에 존재한다

최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안내견을 쓰다듬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안내견은 무조건 만지면 안 될까?

'무조건' 만지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 중'이라는 전제가 있다. 보행 중에 만지면 안내견의 이동 경로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다.

자칫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위험해질 수 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리트리버는 특성상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다. 안내견의 경우 새끼 때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훈련사와 교감도 했기 때문에 사람과 이미 친숙해져 있다.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기보다 시각장애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남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안내견을 예뻐해 주면 흐뭇해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다.

장애인 이동을 하지 않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과 '인사'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만져야 한다.

/추동명 기자

"70%냐, 100%냐"…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대립

여권 일각선 "70% 먼저 하자"

협상 '김김' 점점 못 찾아 고민

주장이다.

정부가 현재 예산 중 100조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당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100%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교통정리'가 될 된 상태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안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보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의 '1인당 50만원' 발언도 100조원 세출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려 했는데 잘 안 됐다. 오늘도 접촉 예정인데, 실제로 만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예결위원회와 간사들이 만나려 하지만,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정기혁 기자

'인정' '아쉬움' '무대응'…페이스북으로 본 수원 낙선자 5인

5개 선거구 모두 패배 통합당 후보들
수원시 민심 '정권 심판' 아닌 '국정 안정'

경기도 정치1번지로 불리는 수원시의 민심은 '정권 심판'이 아닌 '국정 안정'이었다. 4년 전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5개 선거구 모두 여당이 석권했다. 당선증을 거머쥔 후보들의 근황은 당선인사 혹은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의 행보는 좀처럼 부각되지 않는다.

선거 기간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끝내 최종 1인으로 선택받지 못한 수원지역 제1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 평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요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행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페이스

북을 통해 수원지역 미래통합당 후보 5인의 낙선 후 표정을 살펴봤다.

먼저 수원갑 이창성 후보는 '사과' 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선거 이틀날인 16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패배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학 후배이자 검사 후배에게 뼈 아픈 패배를 한 수원병 김용남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후 어떤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다.

수원 5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대결을 펼친 수원병 김용남 후보는 '수긍'과 '감사'를 전했다.

김 후보는 17일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함께해 주신 모든 순간을 가슴 속에

새기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삼성 변호사'로 잘 알려진 수원정 흥종기 후보는 패배 인정 후 '감사와 희망'을 논했다.

홍 후보는 "오롯이 저의 부족함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며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국민,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퇴장을 봤고 용기를 얻었다.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그는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를 향한 고마움을 재차 전한 뒤 추가적인 페이스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회관 맨 위층에 의원실을 배정 받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진 바 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탈북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임선한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고 있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테러·협박이 수시로 있는 만큼 근접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탈북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임선한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고 있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회관 맨 위층에 의원실을 배정 받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진 바 있다.

/김해숙 기자

/박세태 기자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

호국평화
기념관

한미
우정의공원

왜관철교

다부동
전적기념관

진남문

칠곡군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5개소를 추가로 설치

설치되는 충전기 기존의 소요시간보다 4배 빨라

경기 의정부시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지하철 역사 등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최근 지체 및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시청, 송산노인

복지회관,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등 총 6곳에서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1,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이용자 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의정부역, 회룡역 및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곳에 충전기를 우선 설치하고, 하반기에 건립 완공 예정인 복지시설 등 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충전기는 일반 충전기의 소요시간(8시간) 보다 4배 빠른 2시간이며, 충전기 한 대로 보장구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보장구에 충전케이블을 연결 후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충전이 시작되고 자세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은 충전기에 부착된 안내 표지판을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할후 충전기 관리자 지정, 정기 점검, A/S센터 연락체계 유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활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안내 표지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총 11곳의 충전 소가 확보됨에 따라 충전소를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



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장흥군, 다채로운 블루경관 조성 ‘눈이 호강’

탐진강변 토피어리장식으로 불거리 제공
‘블루경관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만들 것’

전남 장흥군이 블루경관 조성을 통해 다채로운 불거리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최근 탑진강 유지관리와 지역 유휴 토지를 활용한 경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탑진강 지킴이 작업단’을 운영해 색다른 경관 조성에 나섰다.

‘탑진강 지킴이 작업단’은 강변에 식재된 벚나무, 황금사철, 배롱나무,

홍가시 나무 등 수목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잔디밭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배토작업, 비료 살포, 예초작업 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탑진강을 만들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탑진강변 제방 경사면에는 영산홍과 황금사철나무를 이용하여 물축제 홍보문구를 토피어리 형식으로 식재해 불거리도 추가했다.

군은 앞으로 홍가시나무, 황금사철 등 관목류 식재를 통해 탑진강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아름답운 경관을 선사할 계획이다.

마을주변 유휴토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경관조성도 눈길을 끌고 있다.

경관숲 조성사업은 장흥읍 행원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관숲 1호에 이어, 장흥읍 연산리부터 부산면 내안리 연결도로 구간을 황금사철나무 식재해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경관숲 2호로 탄생 시켰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꾸준한 탑진강 관리와 경관숲 조성을 통해 풍성한 불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며, “맑은 물 푸른 숲의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 유동인구 500만명 시대를 여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파주시, 어린이 시설 소독용역

경기 파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을 착수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71개소로 오는 10월까지 모래놀이터 소독과 충만감사 탄성바다 스텁 소독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기구 소독을 병행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수원시 팔달구 ‘재난기본소득’ 착한 나눔

화서1동 통장협의회 기부 캠페인 동참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봉사도 앞장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경기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기부 나눔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팔달구 화서1동 통장협의회도 착한 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지난 17일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에 대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안내소에서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매일 2인 1조로 방문자 발열 체크,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등 자원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기익 통장협의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내 생애 첫 재난기



본소득을 기부하는 데 의미가 크다. 착한 나눔 운동이 날개를 달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화서1동장은 “평소에도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부 캠페인에 자원봉사까지 솔선하여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이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영암군,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실시

남 영암군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고 우리군 전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표지를 오는 10월말까지 일제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암군은 호남평야에서 분기되는 땅끝기암으로 월출산 천황봉을 정점으로 하여 동남쪽으로 기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가기준점표지는 금정면 죽대봉(394M)을 시작으로 석교산(392M), 국사봉(614M) 활성산(498M), 영암읍 깃대봉(517M), 군서면 천황봉(809M), 주지봉(492M), 학산면 은적산(394M), 미암면 흙석산(652M) 등에 이르기까지 산악지대에 고루 설치되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지역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장흥 현대푸드, 코로나에도 고용유지 ‘정면돌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제조업계에 불황이 덮친 가운데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기업이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남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현대푸드(대표 강종채)가 그 주인공이다.

현대푸드는 2016년부터 증석 땅콩버터오징어구이를 제조해 대형 멀티 플렉스 극장가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장가 휴업으로 납품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1월 4억 원의 판매를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장흥/김종현 기자

요될 것을 감안하면 당장 생산을 중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현대푸드는 25명의 임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강종채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에도 서로 힘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감축을 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대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고양시, 세상이 잠시 멈춰버린 지금, 힘내세요!

‘작은 정원 만들기 키트’ 문고리 배송
외부활동이 제한된 영유아와 부모에게

(사)고양시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역 전시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의 영유아 회원 300여 가정에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장난감 키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강화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가정 보육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활동이 제한된 영유아와 부모가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난감키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전시관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허깅하며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장난감 화분을 만들 수 있도록 식물과 블록가든 키트, 배양토를 함께 구성·기획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할 장난감을 구입, 손수 포장하고 ‘세상이 잠시 멈춰 버린 지금, 힘들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극복하자’는 응원 메세지를 담아 직접 문고리 배송까지 진행했다.

코로나19로 휴관중인 일산역 전시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개관 후 업사이클링 마스크 만들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업도 운영할 방침이며 전시



관 해설 및 장난감 대여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사) 고양시새마을회 직무대행 김창규회장은 “희망장난감도서관에서 그간 연회비로 모은 일부 금액을 회원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이번 장난감 키트 문고리 배송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부모들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집콕 놀이 활동 장난감키트 제공으로 가정 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일산역 전시관, 희망장난감도서관의 보다 많은 소식은 일산역전시관 홈페이지(ilسان-platfo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역 전시관(031-902-1788), 장난감도서관(031-902-2788)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고양/김성태 기자

24시 운영진 상시대기



상록실버요양원
구영애 원장

모시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제작한 홍보자료입니다.

저희 상록실버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되어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유기농 채소와
자연건강식 조리법으로 식비는 절감하고, 영양관리에는 더욱더 신경 썼습니다.
소중한 어르신 한분 한분을 늘 한결같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모집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이 연약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 교포 가능(F4 비자 소지자)

프로그램

- 치매예방 프로그램(마술치료, 웃음치료, 놀이 등)
- 특화프로그램(정기예배, 음식 만들기 등)
- 공연관람(음악회, 하프연주 등)



상록실버요양원

문의 031)415-2142

인천시 단원구 고진동 537-6 유창빌딩 24층 (중앙역 도보 5분)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착수 보고회 개최

단계적·체계적인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확보 목표 하는 계획

하남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데이터,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플랫폼 도시공간에서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하남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상호 하남시장을 필두로 전 서장들이 창출하는 화상으로 진행된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 재난,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ICT 융합기술을 도시에 접목시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골자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하남시민의 맞춤형 특화서비스 모델 도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및 단계별 이행과제 선정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방안 등이며 해당

용역은 2025년까지의 하남 스마트도시의 로드맵을 완성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있어 공무원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계획이 수립되면 하남시 스마트 도시사업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후 12월에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남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을 확보했으며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상황 통합관리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들을 데이터화하고 AI를 통한 분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플랫폼 도시'의 핵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도시를 공간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우리의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미사, 위례·강일·갑북·조이, 천현·교산 등 생활권에 맞는 콘셉트로 추진하고 5개 권역별 부도심을 연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공직자·전문가들이 함께 의견



도시를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우리의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으로 "공직자들과 하남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주민자치위원회, 미사, 위례, 강일 임주자대표 등 시민과 공직자, 전문가의 소통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도시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한 하남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하남/이광희 기자

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의정부시, The G&B City 프로젝트 보고회 개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꽃나무보며 삼성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최근 The G&B City 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지속되는 의정부시의 민선7기 역점 사업인 The G&B City 프로젝트는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화와 정비가 필요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시민참여 녹화사업에 8개 사업, 푸른도시 조성사업에 17개 사업,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22개 사업, 권역별 맞춤사업에 119개 사업,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에 6개 사업, 축제 및 행사 분야에 3개 사업을 추진한다.

황범순 부시장은 "시민 참여가 중요한 The G&B City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복병을 만나 활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시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원과 하천 등



진 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범순 부시장은 "시민 참여가 중요한 The G&B City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복병을 만나 활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푸르고 아름답게 가꾼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는 14개 동별 'The G&B City 콘테스트'를 오는 7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용인,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축산물 꾸러미' 판매

용인시는 지난 17일부터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돋기 위해 '농·축산물 꾸러미'를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꾸러미는 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가에서 생산한 채소, 축산물, 화훼, 배육설 등으로 구성된다.

삼겹살(600g)과 버섯, 쌈채소 등 7가지 농산물로 구성된 2만원 상당 한돈꾸러미, 소화분 4개와 방울토마토로 구성된 1만원 상당 꽃꾸러미 등 2가지를 판매하며 용인백육살(10kg)도 2만8천원에 따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협의회는 경찰서나 노인복지관 등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꾸러미를 판매했다.

시와 농협 용인시지부, 축협 등은 농축산물 출하, 포장, 배달 등을 도왔다.

이 가운데 수지구는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2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160개를 구입해 외출이나 식사가 힘든 홀로어르신, 재가장애인 등 160가정에 전달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 '성황리 종료'

평택시가 지난 14일, 17일, 18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남부, 서부, 북부)로 진행한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는 쌀, 돼지고기, 김치와 오이, 애호박 등 평택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45%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안전보험을 가입한지 올해로 4주년을 맞았다"며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감동 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드라이브스루 특성 상 약간의 차량 대기 등 불편함은 있었지만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싱싱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송탄 이충례포츠 공원 판매 행사는 KBS(작한소비 상생경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농가·지역업체 간 상생 노력의 모범 사례로 취재를 하기도 했다.

정장선 시장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추진했는데 농축산물 판매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면서 "앞으로 농가와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착한 소비운동 등 판로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평택/유기영 기자

기후위기 비상행동, 광명시민과 함께 '10분간 소등'



지구의 날 50주년, 4.22 오후 8시 10분

지구환경보호자는 취지 시작 기념일

광명시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명시민과 함께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계기념일로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는 광명시 산하 건물 등 공공 기관 소등뿐 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 조명 소등, 전자기기 사용 멈추기 등 자발적 소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하여 지구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및 외부 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는 환경

의 날인 6월 5일로 연기했으며, 지구의 날 기념 10분간 소등 인증 SNS이벤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지구에 휴식을 주는 10분간의 소등, 기후행동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탄소생활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 차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텐츠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김해숙 기자

시흥시, 민생지원 정책 추진현황 점검 회의 개최

민생지원 정책 추진현황 점검

제시된 문제점 대응방안을 논의

시흥시는 최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차관회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10여 개 주요부서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종력을 기울이고, 현재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흥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명시는



극적인 홍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방지 등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기에 있어,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시점에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차 부시장은 "민생지원 정책들의 대상별 홍보에 좀 더 힘써서 정책 수혜도를 높이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질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방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에 제도 건의 등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흥/길대성 기자

안산시, 고위험군 시설 '핀셋형 집중점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점검

고강도 방역지침 이행 당부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차원에서 집단 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속해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말인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국내 확진자 수가 하루 50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상태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과 관련해 집단 감염 고위험군 집중점검 대상을 유형주점과 단란주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4주째로 접어들며 조금씩 해이해지는 시민들의 경계심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와 행정명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힘든 상황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기로 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카페 등 주거적으로 병역을 마친 가게에는 시에서 소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독필증 안심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도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걱정도 덜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와 행정명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힘든 상황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길대성 기자

양주시, 시민 안전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재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시 보상
1년간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

양주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시민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종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이틀에 26만명 전체 25%

전국 자체 최초 선불카드 방식 도입,
정부지원금 자체 매칭율 20% 예산 확보

경기 고양시 위기극복 지원금이 이를 만에 25%가 시민들에게 지급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시는 위기극복지원금 지금 첫날인 14일, 고양지역 내 39개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위기극복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16일 기준 26만 849명에 130억 4,25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인구 107만 명의 25%에 이른다. 고양시의 이같이 현저히 높은 지급 속도는 별도의 카드 신청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 덕분이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위기극복지원금 지원을 추진해 왔다. 실제 고양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청증을 제시하고 작성해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세대원과 지급금액 및 명부 등 담당자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시민들도 빠르고 편한 선불카드 지금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A씨는 “위기극복지원금을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찍 받을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해주니 정말 편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B씨는 “작은 금액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주니 만족 한다”며, “신청서만 주면 선불카드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고양시는 위기극복지원금을 현재 4인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4월 20일~26일에는 2·3인 가구, 27일 이후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되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령



시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 소득에 대해 이미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이제는 속도가 관건이다”며,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난 지원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기존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들께서 정부지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경기북부 최대 의정부 을지대병원 내년 3월 개원

대지 12만4천399㎡, 연면적 21만676㎡
현재 74% 공정률 2021년 3월 개원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세이온 부지에 첫 민간 개발사업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2021년 3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지면적 12만4천399㎡, 연면적 21만676㎡의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부속병원은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4월 현재 74%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1년 3월 개원 및 개교 예정이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일반·보건 임상간호 대학원 등 4개 학과 편제로 정원 약 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은 경기북부 지역 최대 규모인 905병상(지하 5층~지상 15층)으로 조성된다. 38개 진료과/7개 특수부서/7개 전문진료센터(척추증후센터, 뇌신경센터, 여성센터, 난임센터,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내분비센터) 등 환자를 위한 치유와 재활, 직원·지역민을 위한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이 모두 가능한

의료문화 복합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 을지대 병원은 국내 최초로 5G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으로, 2019년 9월 LG 유플러스와 5G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AI-EMC)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스마트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 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 기반 솔루션 제공 ▲ 환자 및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 VR 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 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 등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VR 간호 실습 ▲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통해 유의성과 안전성 강화 등 5G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 실현 ▲ 격리 환자의 감염 예방 ▲ 보호자와 환자의 감염 예방 ▲ 보호자와 환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 가능한 360도 VR 병문안 ▲ 겨울동 불편한 환자들

을 위한 가상현실 헬링 ▲ 안정적인 수면과 공기질 체크가 가능한 IoT 병실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병원 환경 조성 등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을 위한 헬리포트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당초 병원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계하였으나, 더욱 신속한 환자 수송 및 처리를 위하여 대운동장에 헬리포트를 추가한다.

응급환자가 옥상 헬리포트에 도착시, 응급실까지 약 7분이 소요되지만 운동장 헬리포트에서는 응급실까지 약 2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과 군부대 등 응급환자 발생률이 높은 경기북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착륙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진택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장은 “의정부시 미군공여구역의 청민간투자사업인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의 개원이 얼마나 않았다”라며, “경기북부 최대 규모라는 위상에 걸맞게 실력과 서비스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연천, 연천형 코로나19 지원 변경



연천군은 당초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재산 152백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기준 운영 지침」에 따라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재산, 소득, 금융재산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군민을 전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020. 1. 1. 기준)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휴폐업자 등 중에서 전년 매출 10% 이상 감소됨을 입증하거나 일용근로자, 실직자, 프리랜서 등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것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1개월분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1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천/김승곤 기자

파주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 박차

스마트농업연구 남북농업협력 발판
군부대 훈련장 파주시 농지 매입 운영



파주시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인 장단면 거곡리 6번지 일원 21.7ha에 파주시 새 소득작목개발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의 지역적 응시험 및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은 지난 30여 년간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지역으로 파주시가 농지를 매입해 운영하며 전국 자체의 농업시험연구포장 중 최대의 규모다.

현재는 오래 방치돼있던 토지를 대상 농지기반정비와 갈대제거작업을 완료하고 토비살포와 농작물 재배를 위한 구획정리를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적용 시설하우스 5동을 설치해 5월부터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의 지역적응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주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서는 재래종인 늦서리태의 종자가 다양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늦서리태 채종포를 조성하고 최적의 종자를 선발해 히망 농가에 자율교환해 파주장단콩축제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와 걸맞은 ‘무궁화 유전자원 전시포’를 조성해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심고 특히 파주지역에서 수집돼 명명된 ‘임진홍’ 품종을 특산화 한다는 계획이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파주시의 새로운 농업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지속적인 농업연구를 통해 소득에 기여하는 농업 주제로 함께 남북농업협력과 북방농업의 전초기지로써 최적지인 만큼 지속적으로 첨단농업기술과 생산성 증대 기술을 연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광주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차상위계층 청년들 사회에 안착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



광주시는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돋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종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생계·의료 수급권 하락을 막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천44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지적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 만 39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이 제한으로 청년저축계좌 대상이 안 될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 시 3년간 근로 유지 및 총 4회의 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이 지원돼 총 720만원이 적립된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통장Ⅰ’ 등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통장의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 등 세부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이근학 기자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풀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천연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대구시, 코로나19 영웅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의료진·구급대원·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

SNS프로필 이미지 3종 제작 SNS 공유 캠페인 진행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준 의료진, 구급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민 참여 SNS 감사릴레이를 시작한다.

지난 2월 18일 이후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공 의료 붕괴가 눈앞에 달치자 공중보건의료 간호장교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위기의 대구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구지역이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됐으며 그동안 확진자의 호송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신 구급대원 244명

이 3월 19일 복귀했다. 또 4월 10일에는 신임 간호장교 75명도 원대 복귀하는 등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민 참여 SNS 감사릴레이를 시작한다.

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코로나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대구는 당신을 기억한다” SNS 릴레이를 시작한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SNS프로필 이미지 3종을 제작해 대구시 홈페이지와 SNS채널로 배포하는 SNS 공유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다양하고 개성있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감사 릴레이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릴레이 이벤트는 대구시가 제작한 감사 이미지 스티커를 마스크면에 부착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활용한 후 대구시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대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1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며 우수작 5명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기동 대구시 홍보브랜드담당관

은 “대구로 달려와 준 코로나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이번 캠페인이 대구시와 시민들이 느끼는 감사의 마음을 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코로나19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힘내요 대구’, ‘대구의 4월 기다려봄’ 등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한 SNS프로필 응원릴레이와 ‘328대구운동’ 등 범시민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북도, 고용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과 일자리까지 제공

고용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4,695건
이자사 “생활안정과 일자리 세심하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전국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고용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경북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서 긴급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정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월 50만 원(1일 2.5만 원 기준, 월 20일 상한)을 최장 2개월(40일)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고 월 50만 원(1일 2.5만 원 기준, 월 20일 상한), 최장 2개월(40일)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근로자에게는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한시적으로나마 공공 부문 긴급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부터 무너지는 고용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줄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도청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데 이어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시·군청(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

수를 병행한다. 현재 접수 결과(4월 17일 기준) 총 4,695건이 접수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합심 노력을 결과로 코로나 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회복 대책”이라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도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주시립도서관, 북스타트 꾸러미 배포 재개

생애초기부터 시작하는 독서습관 향상
아기들의 월령에 맞도록 선착순 배부

경주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를 재개한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은 아기가 생애 초기에서부터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독서운동이다.

책꾸러미 배부는 21일 화요일부터 본관, 분관(송화, 중앙, 칠평, 감포, 단석)에서 이뤄지며, 아기들의 월령에 맞도록 0~18개월의 아기에게는 북스타트 꾸러미(그림책 2권, 손수건, 아이 스카프, 다이어리, 가이드북, 가방)를 19~35개월의 아기에게는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그림책 2권, 크레



용, 스케치북, 다이어리, 가이드북, 가방)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이대우 경주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의 기회가 꺾인 시민들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유예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것에 이어, 도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결정은 4월 2일 시행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기업이 경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해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숨통을 터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 경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협력자금 등 기업이 상환할 금액은 300억 원 정도로 이중 창업 및 경

쟁력, 청년창업, 벤처육성 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130억 원, 이번 상환유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대수준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함께 경북도의 전폭적이고 과격적인 지원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북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양대 중심축이며 심장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위태로운 경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꽃을 하나도 꺼뜨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 사업들을 직접 쟁기면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현재 화려한 변신 중

철쭉 동산·조롱박 터널 등 조성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볼거리 제공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콩세계과학관과 주변 사과홍보관 및 테마공원을 연계해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 화려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콩세계과학관은 지난 2014년 부석면 임곡리 일원에 총면적 102,833㎡로 조성된 콩세계과학관은 올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콩세계과학관 뒷동산과 연못주변에 느티나무, 학자수, 영산홍, 개나리, 수양버들, 도라지 등을 식재했으며, 영주시민 중 비농업인 세대를 대상으로 부식태 콩밭을 조성해 한 세대당 10m²씩 100세대에 분양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4월 8일에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콩세계과학관 주변 야외동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워온 영주시의 시목인 철쭉 150주



를 식재했다.

앞으로 야생화 비비추, 개양귀비, 바이테스 등의 야생화를 주가로 식재해 자연미를 한층 높일 계획이며,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위해 145m의 조롱박터널 조성과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기술지원과장은 “콩세계과학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콩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볼거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콩세계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경주시, 보문호 일원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 얻어
도시락, 가자미 진공품 등 판매나서



경주시는 지난 주말 양일간 보문호 천군동 차량 쉼터에서 실시한 수산물 드라이브 소비촉진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1시간 만에 완판 됐다고 밝혔다.

시와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이동 판매장에 판매한 물량은 회 도시락 550개, 반煎조 가자미 진공품 160개로 판매금액은 1,420만 원이다.

이번 행사는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이며, 회 세트는 참가자마다 활어회와 기름가자미를 반반씩 담아 야채와 같이 간단하게 비벼 먹을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오는 25일과 26일에도 오전 11시부터 한 번 더 실시한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돋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 외에도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주관광두레 PD, 지역관광 활력방안 모색

지역관광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크라우드펀딩 기획프로젝트에 선정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선정된 경주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금장살롱과 경주플래닛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크라우드펀딩 기획프로젝트에 선정됐다.

관광두레 지원을 통해 경주 지역 산물인 마늘, 양파, 천년한우, 백송고버섯 등의 재료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후원금을 모금했다.

금장살롱은 양강마늘, 산내고추, 건천양파를 활용한 야채잼 상품 3종을, 경주플래닛은 경주천년한우와 백송고버섯을 활용한 경주천년한우 만두를 개발했다.

경주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가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사업체와 펀딩 전문업체 그리고 이를 기획한 경주PD가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했으며, 이번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주관광두레사업은 지난해 4개 주민사업체가 선정됐으며 올해 청년PD가 선정되어 지역주민주도형 관광두레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 나서

여성채용기업 대상 여성전용시설 개보수
 지난해 16개 기업 6,200만 원 공사비 지원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2개 업체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여성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업체에 여성전용시설(화장실·휴게실) 개·보수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사물함, 냉·난방기, 온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개의 기업이 총 6,200만 원의 공사

비를 지원받아 여성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경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 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업 환경개선지원원 및 구직자 및 취업자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워킹맘 자녀진로설계 프로그램, 멘티·멘토링 프로그램, 간담회 등 다양한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여성채용을 촉진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고양시켜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남도, 과기부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으뜸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과학문화 서비스 제공

과기부 평가 우수,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돼

경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관 평가는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3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네트워크, 사회적 기여도, 과학관 특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도내 과학관은 지난해 찾아가는 과학관·과학놀이터·과학교실 운영(창원 과학체험관)과 어린이 과학체험 한마당, 과학싹잔지(경남교육청 과학문화원), 찾아가는 관총회(김해 천문화원), 관립묘 면제 확대(하동지리산생태과학관), 과학캠프 운영(거창 월성우주과학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소외지역·계층에 다양한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천적생태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과 함께 과학관의 특성을 활용한 농업용 천적생산 등 산업적 기여 측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천적생태과학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적을 생산해 공급하는 과학관으로 천적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농민에게 천적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과학관별 다양한 전시 주제를 적극 활용하고 과학관 간 공동 기획전 등 과학관과의 상호 협력을 도모해 지역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부산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

생활만족도 높으나 경제적 어려움 겪어
부산 북한이탈주민 464명 대상 실시

부산시가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책, 경제활동, 건강, 교육 등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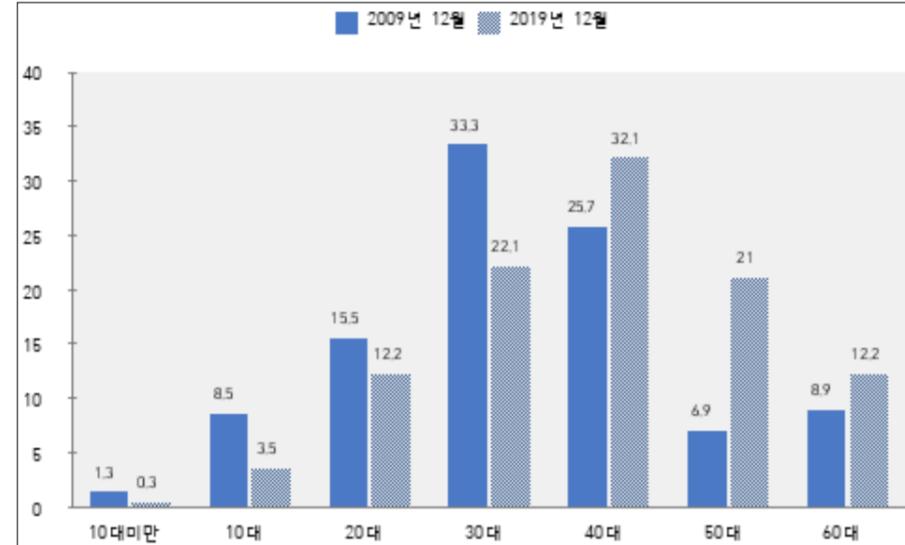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시가 부산하나센터와 협력해 진행한 것으로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955명 중 464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했으며 설문조사 코딩, 분석 결과 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 분야에서는 생활만족도는 4.26점으로 2010년 3.38점 대비 상승했으며 생활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49.4%, 차별·무시 경험 21.8%, 신체·정신 건강 문제 59.5%로 나타나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경제, 건강 등 생활 전반의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0년 40.3%에서 2019년 52.04%로 12.1% 증가했고 근로 형태는 상용직 64.5%, 일용직 13.3%, 임시직 12.5%, 자영업 8.9% 순으로 2010년 대비 상용직이 2배로 증가하고 일용직·임시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 문제 30.3%가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22.7% 순이었다. 실업률은 2010년 59.7%에서 2019년 47.6%로 떨어졌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2010년 67.2%에서 34.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액은 월평균 개인 148만 원, 가구 213만 원으로 국민 개인평균 285만 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건강·교육 분야에서는 건강 인식에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49.1%, 보통 28.9%, 건강하다는 인식이 21.2%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으로 겪는 어려움 정도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7.1%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 38.1%보

다 높았다. 자녀교육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39.3% 비율이 가장 높고 진로에 대한 걱정 26.2%, 학습부진 13.1%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0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정착 만족도 및 실업률, 기초생활 수급률, 근로 형태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나 전체 국민에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며 "앞으로 부산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창업, 의료, 고령자 및 독거민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장·단기적 시책에 반영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영찬 기자

거제시는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명칭 공모 결과 'G.R.E.A.T 운동'을 최종 선정하고 제안자인 과동빈씨에게 시상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내 관광사업장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위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명칭이 모호해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캠페인 취지에 맞고 더 쉬운 명칭으로

변경해 새롭게 운영코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종 선정된 "G.R.E.A.T. 운동"은 G R E A T 이다.

영문자의 머리글자를 하나하나 결합하면 GREAT, 즉 '훌륭한'이라는 뜻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식, 숙박, 유료관광사업장에서 경험하는 친절, 청결, 환대서비스가 "훌륭하다"라는 칭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G.R.E.A.T 운동' 명칭을 다듬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취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친절과 청결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칭찬업소를 확대해 전국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전국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 김영찬 기자

명칭 공모에는 총 154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시는 1, 2차 선호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1건을 선정했다.

'다주리 부산'의 아이디어는 매년

부산시, 전국 최초 '사이버 숲체험'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일상에
휴대폰 이용한 간접 체험 실현해

부산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간접 숲체험을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숲체험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휴대폰을 이용한 '사이버 숲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21일부터는 매주 8회 각 30분씩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부산산림교육센터 사이버 숲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시민들이 직접 숲을 찾지 않아도 숲해설가와 같이 호흡하며 숲을 즐길 수 있어,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접 숲체험을 통해서도 숲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영찬 기자

거제 칭찬하기 운동 명칭 공모

거제시는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명칭 공모 결과 'G.R.E.A.T 운동'을 최종 선정하고 제안자인 과동빈씨에게 시상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내 관광사업장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위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명칭이 모호해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캠페인 취지에 맞고 더 쉬운 명칭으로

변경해 새롭게 운영코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종 선정된 "G.R.E.A.T. 운동"은 G R E A T 이다.

영문자의 머리글자를 하나하나 결합하면 GREAT, 즉 '훌륭한'이라는 뜻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식, 숙박, 유료관광사업장에서 경험하는 친절, 청결, 환대서비스가 "훌륭하다"라는 칭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G.R.E.A.T 운동' 명칭을 다듬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취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친절과 청결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칭찬업소를 확대해 전국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전국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 김영찬 기자

부산시, 선거용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 추진

폐현수막 다용도 주머니로 제작·배부
'다주리 부산' 사업 통해 재활용 사용

부산시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서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선 이후 발생되는 폐현수막을

초등학생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주머니로 제작·배부하는 '다주리 부산', 재활용자원을 부산 시민에게 다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리 부산'의 아이디어는 매년

부산 김영찬 기자

김해시 코로나19 대응 디딤돌 공공일자리사업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특히 일용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디딤돌 공공일자리사업'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은 쿠션과 청결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청탁업소를 확대해 전국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전국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104명을 선발해 방역작업, 환경정비, 행정지원 등 3개 사업영역 13개 사업장에 배치, 9월까지 약 5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하루 6.5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며 공공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김해 김영도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경주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산성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불국사
석굴암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전주시 구도심 차도, 사람 중심 길로 탈바꿈

어둡고 침침한 서노송예술촌 일대 인도·가로환경 개선

전라감영 앞 도로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 걷기 좋은 길로

을 상반기 중 동편부지 복원이 완료될 예정인 전라감영의 앞 도로가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된다.

어둡고 침침한 서노송예술촌 일대 도 인도 설치와 가로환경 개선 등 시민의 안전에 초점을 둔 보행중심 거리로 조성된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60억2700만원을 투입해 전라감영과 서노송예술촌 권역으로 인도를 개설하고 거리 경관을 만드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6월 공사를 착수한 전라감영로의 경우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 40억원을 투입해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로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전라감영부터 완산교 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시는 인도가 없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 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던 전라감영로의 양측에 인도를 개설하고 도로 위 전선을 지중화해 보행공간과 시야를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다 전라감영과 고미술거리, 약령시 등 문화와 역사를 고려해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 화강석으로 인도를 포장해 거리의 전통미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이팝나무 등을 식재해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하고 전주시보건소 앞 녹지공간은 조경쉼터로 조성하는 등 시민과 여행객에게 푸르고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이 위치한 권삼득로의 경우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우주지대 방범용 CCTV도 설치키로 했다.

이 같은 전주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는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의 미를 추구하면서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



행약자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또 권삼득로 인도에 이팝나무 등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해 어두운 보행환경을 밝게 개선키로 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우주지대 방범용 CCTV도 설치키로 했다.

이 같은 전주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는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의 미를 추구하면서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

심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물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담고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면모에 걸맞는 특색 있는 거리 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도심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순천시, 경제활성화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

4월20일~5월11일 미신청농가추기접수
연간 60만원 지급‘농어업인 공익수당’

순천시에서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오는 29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순천시는 2019년도 하반기 소급분과 2020년도 지급분에 대해 당초 5월 말과 10월말에 균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이번에 지급되는 총 금액은 114억 원이다.

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



업인 만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5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최종기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어 공모

기린대로 전자상가거리 화분 30개 배치
22종 4000본 꽃 9종 300여본 수목 식물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다종집합공간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편안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도심 휴정원 및 화분 설치사업’을 다음 달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단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지만 녹지가 부족한 오거리광장과 풍남문광장, 서학광장, 기지제 수변공원 등에 20~72㎡ 규모로 정원 형태로 만들어진다.

시는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

체돼 있는 기린대로 전자상가 거리에도 다양한 꽃이 식재된 화분 30개를 배치해 거리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미기로 했다.

이곳에는 가우라, 구절초, 백리향, 꽃 등 22종 4000본의 꽃과 만병초, 목수국, 노랑말채나무, 수수꽃다리 등 9종 300여 본의 수목을 식재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우울한 시민들에게 꽃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꽃으로 그려진 자연미술관을 곳곳에 조성하여 한다”며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저류지 공원 등 도심 전역에서 개최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어를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제어 공모에는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높이고 박람회 개최의 의미를 학제적으로 담을 수 있는 12자 내외의 한글 문구와 함께 영문 표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 1인당 하나의 주제어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는 주제적합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활용 가능성이며 총 3차에 걸쳐 심사하게 된다.

순천/최종기 기자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

광양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돋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업 등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원으로 융자금에 대한 3%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시와 협약 체결된 7개 금융기관 15개 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기모 기자

영광군, 맥류 붉은곰팡이병 적기방제 철저

영광군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보리 생육상황이 작년보다 좋아 출수기가 빨라졌으며 날씨 전망에 따르면 4월 중순 이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어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보리 출수기부터 유숙기까지 평균기온 18~20℃이고 습도 80% 이상이거나 강우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주요 병징으로는 이삭이 갈색으로 변색되고 점차 진전되면 흥색의 곰팡이 또는 흰곰팡이가 발생되어 알이 차지 않거나 검은색으로 변색된다.

관내 맥류 출수기는 적기파종의 경우 온도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1주일 이상 빨라짐에 따라 출수기 전후로 강우가 예보될 경우 농가는 적용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하고 배수로 정비 등 포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붉은곰팡이병은 다발생하면 맥류의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발생한 붉은곰팡이는 사람과 가축에게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하므로 적기방제와 포장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노경태 기자

여수 ‘행복한 부모, 100일 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강좌별 40명 선착순 모집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행복한 부모, 100일 프로젝트’를 주제로 2020년도 학부모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카데미가 5월부터 7월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와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올해 학부모 아카데미 주제는 지난 2월 학부모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입시정보, 학습, 삶 등 학부모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반영했다.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에서 접수 가능하며 강좌별 4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간반은 화요일 오후에 진행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와 심층독서 심층독서 커리큘럼과 활용’을,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갈등에 생기는 것일까, 메타인지 학습 코칭법, 학생부종합전형 준비하기’ 등을 강의한다.



토요일 자녀동반 프로그램은 학부모를 위해 ‘자녀의 잠재력 개발법과 대화법, 공부방 꾸미기 방법’ 등을, 자녀를 위해서는 ‘메타인지 커리큘럼과 활용’을,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갈등에 생기는 것일까, 메타인지 학습 코칭법, 학생부종합전형 준비하기’ 등을 마련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영광,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 보조금 70% 지원

주택 1가구당 151만원 부담
연 60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영광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택 설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군민이 신재생에너지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설치비의 55%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보조율을 70%로 상향해 설치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주택에 3kW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설치비용은 503만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352만원이 지원되므로 주택 소유자는 151만원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인



가구의 경우 연간 6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9월 4일까지이다.

사업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후 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37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영광/노경태 기자

보성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계획도, 조감도, 설계도면 첨부 신청
평가위원회 평가 6월 중 홈페이지 개시

보성군은 오는 5월 1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성 유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보성군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회천면 유포관광지 일원 개발에 쓰일 사업비 48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등 최대 2천만원, 2등 최대 1천만원, 3등 최대 5백만원 등 총 상금 5천만원이 지급된다.

해양레저, 교육, 관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형식에서 사업계획도, 조감도, 설계도면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5월 11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 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 결과는 해양레저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 후 6월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 유포관광지 특색 있는 해양 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템 발굴에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장흥초, ‘구글 클래스룸’ 기반 온라인 개학

장흥초등

장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모든 행정력 집중

친환경농업 예산 25억 9천 2백만원 상승 301억 7천만원

친환경 농업 통한 소득증대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장흥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 자체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훈합 유기질비료 및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 지게차 등 농업용 기계 장비 구입비에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신속 집행 성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개편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다방

면에서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여수시, '도시소비자 육성'으로 '농업의 가치 높인다'

도시소비자 육성과정 21일부터

선착순 접수, 총 12회 360명 모집

여수시가 우리 쌀의 소비 확산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도시소비자 육성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1일부터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쌀빵 아카데미 교육과 농촌융복합사업 현장체험 2개 교육 과정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며 여수시민이나 여수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쌀빵 아카데미 교육은 30명씩 4회, 120명을 모집한다.

변화된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춰 쌀가루를 이용한 제과제빵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체험은 30명씩 8회, 240명을 모집해 도시소비자에게 관내 농산물·가공품 생산과정 이해를 돋고 우수성을 알린다.

소비자 의식 교육 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과 가공품 생산지를 견학하며 고추장·청국장 만들기, 새싹보리·새싹삼화분 심기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가족은 여수시 OK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체의 경우 10명 단위 최대 30명 까지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서와 참석자 명단 등 구비서류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방문 접수하거

보성군,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일손돕기 나서

내국인 노동자 구하기 어려워

공무원 40여명 차재배 농가 찾아

보성군 공직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보성군청 공무원 40여명은 16일 보성을 끼고 차재배 농가를 찾아 차나무 5,000주 묘목심기 작업을 도왔다.

차 농가가 많은 보성군은 4월부터 최고급 품질인 햇자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찾았기와 차밭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

화순군은 지난 16일부터 저소득층 한시생활비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시생활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게 계획이었으나 일손을 구하지 못해 묘목을 심지 못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보성군 공무원들이 빌고 나서줘서 한시를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임준호 산업안전국장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가축시장 폐쇄, 인력난까지 일면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SEOUL FOCUS

2020년 4월호 | 2020년 4월호 | www.hanminilbo.co.kr



기본소득의 전도사,
이재명의 모험은 계속된다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서울포커스

구독문의
☎ 02-839-6077

구독료
월 15,000원 / 연간 15만 원

광양시, 학교 개학연기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가정에 공급
식재료지원사업비 8억6천7백만원 투입



광양시가 친환경농산물식재료지원사업비 8억6천7백만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정에는 '친환경 쌀'을,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4차례 개학이 연기되어 학부모들의 가정 돌봄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 농가 판로에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초·중·고등학교 총 51개교의 17,871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 쌀 10kg 1포대씩을 전달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6,355명의 가정에는 등원하고 있는 시설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자 1박스씩을 지원한다.

친환경쌀은 진상유기농쌀과 옥곡오감이통한쌀, 광양농협 친환경 쌀 작목별로 생산된 유기농 쌀

광양김기모 기자

학교 자투리 공간에 녹색쉼터 조성사업 추진

6월까지 총사업비 3억원 들여

중앙·풍남·해성중 명상숲 조성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시가 학교의 방치된 공간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중앙중학교, 풍남중학교, 해성중학교 등 3개 학교 내 공터를 휴식과 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2020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학교의 공터는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주차공간으로 방치된 공간으로 꽃사과, 조팝나무 등 33종 4651주의 나무와 구절초 등 6종 3650본의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휴식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녹색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또 쉼터 공간에 뒷밭도 조성해 청소년들의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책로와 벤치 등 편의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이 같은 녹색쉼터가 조성되면 청소년들이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감상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열섬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

전주/이재만 기자

고양시, (주)스타필드고양과 ‘사랑의 반찬 지원 사업’

‘사랑의 반찬 지원 사업’ 지원금(금1,000만 원) 전달식

(주)스타필드고양의 후원은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후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최근 (주)스타필드고양과 창릉동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사랑의 반찬 지원 사업’ 지원금(금1,000만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진행했으며, 전달된 온누리 상품권으로 창릉동 저소득 중장년층 및 독거노인 25명에게 매주 1회씩 반찬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역시 후원금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주)스타필드고양의 후원으로 사업을 지속 할 수 있게 됐다.

(주)스타필드고양은 창릉동에 소재한 대형쇼핑몰로 올해 4월에는 무더위쉼터인 창릉동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파라솔 의자 세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박세호 (주)스타필드고양 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간이나마 저소

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2019년 3월 사업비 소진으로 잠시 중단 됐다.

이후 2019년 4월 (주)스타필드의 후원을 받아 현재까지 관내 저소득 중장년층 및 독거노인 25명에게 매주 1회씩 반찬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역시 후원금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주)스타필드고양의 후원으로 사업을 지속 할 수 있게 됐다.

(주)스타필드고양은 창릉동에 소재한 대형쇼핑몰로 올해 4월에는 무더위쉼터인 창릉동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파라솔 의자 세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황수경 창릉동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스타필드고양의 후원으로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함께 참여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본부장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의 좋은 사업들이 널리 알려질 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미상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창릉동의 랜드마크인 (주)스타필드고양에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9620만 원

용인시, 17일 이순선 모금회장 백군기 시장실 방문 전달 -

경기 용인시는 최근 이순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백군기 시장실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돋는 성금 9,6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금회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가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돋기 위해 ‘사랑의 열매 #함께극복-용인’라는 이름으로 이 성금을 내놨다.

이순선 모금회장은 “코로나19로 힘

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3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962가구를 발굴해 가구당 10만 원씩의 성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심한 배려로 성금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다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에 동참하려는 시민은 시나 각 구청, 읍면동으로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면 된다. 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준다.

용인/유기영 기자

의정부시, 익명 기부자 쌀 기부

한 익명의 기부자가 최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주민센터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전해달라며 쌀 20kg 10포를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중동 주민센터를 통해 후원물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기호 가능동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자의 좋은 뜻을 담아 저소득층에게 무사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봉화군, ‘코로나-19’ 후원 물품과 성금 담재!

파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 넘어

방역물품 기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돌봄 손길 필요 하는 취약계층 위해

경기 파주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재까지 기부된 성금이 1억 원을 넘어섰다.

파주시는 지금까지 1억200만 원의 현금과 마스크 4만6,595장, 손소독제 1만3,820개 등 코로나19에 대한 후원금 및 예방물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우호건설(대표 유명환)이 1천만 원, (주)밀알(대표 김면식) 33만 7,000 원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주)환경시설관리(대표 임주섭) 마스크 1만4,285개, (주)파주에코에너지(대표 홍동표) 마스크 5,000개, (주)청룡엔지니어링(대표 김종훈) 손소독제 1만개, 그리고 가수 김대훈이 면마스크 1,000개와 식빵 500개 등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어려움을 나누고자 모금된 성금을 모아 돌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세트 1,000박스를 제작해 전달했다”며 “마스크 및 세정제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 배부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영암군, 지역사회 온정이 코로나19 극복 큰 힘

성금품 기탁 이어져 저소득층에 큰 힘
위기극복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

전남 영암군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려는 성금품 기탁이 이어져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시작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품 기탁은 4월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총 9,400만 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생활비, 온라인 개학에 따른 노트북, 그리

고 지역농가의 어려움까지 극복하기 위한 로컬푸드 구러미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군민통합 에너지가 되어 영암 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 영암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기탁자의 뜻이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440만 원 상당 기화식 살균기 1대 전달 대오엔지니어링 성금 200만 원을 기탁

경북 봉화군에 기업들의 ‘코로나-19’ 후원 물품과 성금이 담재하고 있다.

(주)포드림(대표 김원국)에서 최근 봉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방문, 대구 스타트기업 (주)덕산코트랜에서 제조한 440만 원 상당의 기화식 살균기 1대를 전달했다.

(주)포드림은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전문기업으로 문화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환경지킴이, 사회안전망지킴이 등 다양한 위협에 따른 예측·예방 중심의 지능형 방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권기선 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오엔지니어링(대표 노정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엄태경 봉화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각지에서 나눔에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사랑의 손길과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안산소망봉사회, 사랑을 나눠요

경기 안산소망봉사회는 최근 선부 2동 행정복지센터에 65만 원 상당의 안산다온상품권을 기탁했다.

안산소망봉사회는 나눔과 봉사에 관심을 가진 안산시민 20여명으로 구성된 순수봉사단체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회원들의 은정을 모아 안산다온상품권을 전달한 것이다.

기탁된 다온상품권은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생필품 등의 구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소망봉사회 이정균 회장은 “지역사회의 외롭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기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배수철 선부2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뜻을 모아 온정을 베풀어 주신 안산소망봉사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길대성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광명시, 저소득층 전통된장 지원

경기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지역 주민의 재능 기부를 받아 직접 담근 전통된장을 훌륭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50가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길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회사족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로 버스 승객이 감소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역기금을 기탁해 주신 선진시내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기금은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말했다.

광명/김해숙 기자

성남 판교동, 코로나19 성금·성품 기탁 줄이어

각계 각종 온정으로 코로나19 극복 솔선수범
꿈꾸는교회, (주)에브리봇 기업서 마스크 기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써달라는 성금·성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판교동 꿈꾸는교회와 (주)에브리봇 기업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의사를 전하면서 기탁식이 이뤄졌다.

최근 (주)에브리봇 정우철 대표이사 등이 판교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4,000개를 기탁했다.

기탁받은 마스크는 판교동 관내 등록장애인 80명에게 우선 배분할

예정이다.

또 판교동 꿈꾸는교회에서 판교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1,000개와 현금 1,080만 원을 기탁했다.

모두 1,140만 원 상당이다.

이날 기탁받은 마스크는 판교동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명에게 배분할 예정이며 성금 1,08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12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판교동장은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해 준 기업과 교회 관계자에게 감사



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판교지역 기업·종교인 등의 온정이 이어져 코

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난희 기자

경주시 콜라이트 배터리의 식지 않는 무한사랑

암환우에게 100만 원 현금지정기탁
삶의 희망을 되찾는 큰 원동력 기대

(주)현대성우 콜라이트 배터리 노동조합은 최근 건천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우를 돋기 위해 100만 원을 현금지정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후원을 받은 김씨는 암이 폐, 신장, 대장 등 여러 장기에 전반적으로 번져 신장 및 간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몇 차례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대상자였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던 대상자는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아오지만 많은 의료비 및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도세

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현진 위원장은 "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현금지정기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김 씨가 이번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건강도 빨리 회복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경석 건천읍장을은 "암 투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도움을 준 콜라이트 배터리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콜라이트 배터리 노동조합이 전해준 따뜻한 사랑이 대상자에게는 삶의 희망을 되찾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콜라이트 배터리 노동조합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국에 투철한 사명감과 빛나는 봉사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건천읍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기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경주/한반식 기자

시흥, 이웃 위한 식사대용 식품 전달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정왕본동 김장철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한끼 식사대용 오분귀리 단호박, 오분귀리 자색고구마 14개입 110박스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장철 주민자치위원장, 성창열 동장을 비롯해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참석했다. 기탁받은 오분귀리는 시흥시 1% 복지재단을 통해 정왕본동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및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성창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애써주고 있는데 감사하다"며, "주민자치위원장의 마음을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길대성 기자

용인시, 정암교회·신세계교회 2곳에서 이웃돕기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동백동 정암교회와 구갈동 신세계교회 2곳에서 코로나19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을 위해 식료품과 방역용품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암교회는 저소득 가정에 전해달라며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 원으로 쌀 10kg짜리 100포를 기탁했다.

이 교회는 저소득 홀로 어르신을 위해 월 2회 반찬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이날까지 1117포의 쌀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같은 날 신갈동에선 신세계교회서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라면 100상자와 마스크 532매, 손소독제 85개를 기탁했다.

유성암 신세계교회 목사는 "감염병 위기로 일상이 마비되면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웃들이 피해가 큰데 이 성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정암교회와 신세계교회가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눠줘 고맙다"며 "기탁한 성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시락 봉사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북 영주시 지구협의회에서는 영주적십자병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난 3월 18일부터 입원환자와 전담의료진에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3월부터 국가감염증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18일 기준 총 입원인원 186명, 퇴원 135명, 전원 13명으로 현재 입원환자는 38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게 제공되는 점심, 저녁 식사 도시락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지구 협의회에서 매번 포장해 입원한 환자와 전담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황순근 회장은 "영주적십자병원이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희들의 조그만 힘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입원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봉사활동에 힘써주는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구 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조 기자

(주)월드TNS는 방산장비 부품들을 설계 개발 및 정비 전문업체입니다.

수요군의 요구에 의거 오리콘 등 대공포 계열의 광학장비 및 시험장비 그리고 케이블류 및 배선뭉치를 생산함에 있어 완벽한 만족 제공을 목표로 설계 및 생산에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상품



TAS-970K
자동방향조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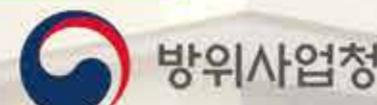


화포시스템 연동 시험기



출력전원모듈

주거래처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령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85-48

Tel) 054-604-1692

<http://worldtns.co.kr>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10가지 건강 상식

(1) 운동을 생활화 하자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산책·조깅 그리고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과 줄넘기·달리기 같은 유산소성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20~30분 이상 일주일에 3~5회씩 꾸준히 하는 것이 운동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 아침을 먹는 습관을 기르자

다들 아침은 잘 챙겨드시나요??

규칙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직결되는 요인 중 하나인 건다 아실텐데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하자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각종 질병의 발생 등 만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이나 취미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4)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음식,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먹는 김치, 젓갈류, 그리고 각종 매운 음식들은 고혈압과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5) 적당한 휴식과 특히 하루에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

잠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수면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인 데요~ 그 중에서 한 연구에 따르

면 하루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고 합니다.

(6)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자.

요즘 현대인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많은 성인병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여전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7) 흡연을 하지 말자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식인데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폐암, 기관지염 폐렴 등 폐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삼가하는 게 오래 건강히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8) 지나친 음주를 삼가자.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되면 뇌기능 장애·간경변증을 포함한 간질환, 심장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9)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자

비만은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암 발생률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저체중은 체내 저항력이 약해 질병 발생이 쉬울 수 있습니다.

(10) 보충제를 먹자

요즘 현대인은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이어트, 알레르기 등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건강하게 살기 위한 10가지 건강 상식

세계연합신문

세계연합신문

세계연합신문

<http://wunion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19년 10월 15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34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공간을 완성하는 1%의 차이 이맥스클럽이 만듭니다

어떻게 유리를 가공했느냐가 공간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이맥스클럽이 만든 유리는 KCC만의 기술력으로 까다롭게 검증하여
품질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맥스클럽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Class가 다른 Glass

e·MAX Club